



가 정 통 신

南星人! 가슴엔 비전을 행동엔 품격을 세상엔 사랑을

2018. 12. 28.(금)
상담교사 한유정
☎ 063-859-9144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21세기 민주사회에 필요한 태도를 함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장애 이해에 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나누며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자녀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며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 정서·행동장애

- 정서·행동장애학생의 평균지능은 일반학생의 하위평균인 약 90정도이며, 상위평균이상을 보이는 학생은 비교적 적습니다.
- 정서·행동장애가 심하면 기초학업기술 외에도 기본적인 자조기술(예: 식사기술 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정서·행동장애학생은 과다행동, 산만함, 충동성의 특성이 있으며, 보편적인 문제로 때리기, 싸우기, 친구 놀리기, 소리 지르기, 반항하기, 울기, 기물 파괴하기 등의 지나치게 충동적인 행동들이 자주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 시·청각 장애

- 일반적으로 시각 장애의 정도는 사물을 어느 정도 명확히 볼 수 있느냐 하는 **시력(視力)**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시야(視野)**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되며, 시각장애는 사회적인 것으로서 시간, 장소,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흔히 시각장애는 전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상당수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光覺)**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시각 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청각 장애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농, 고도 난청, 중등도 난청, 경도 난청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청각장애학생은 언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말하는 수화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 청각장애로 인해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청기는 말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증폭해 주는 것입니다.

◎ 학습장애

- 학습장애는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닙니다.
- 학습장애 학생들은 평균 지적기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주의집중이나 지각, 기억력 등의 결함으로 인해서 특정기술의 학습에 심각한 장애를 나타냅니다.
- 학습 장애는 선천적인 중추 신경 기능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습 부진과는 달리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6을 9로 읽는 등 시지각(視知覺)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눈과 손이 함께 하지 못하여 글씨를 쓰지 못하거나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학습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